2020년 6월 10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쏠림 현상 우려 속 대형 기술주 강세

아마존 +3.04%, 애플 +3.16%, 페이스북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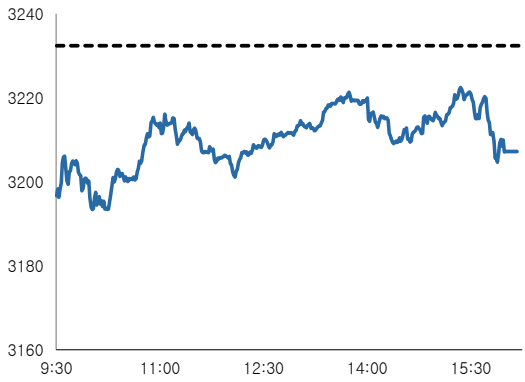
미 증시 특징: 종목 쏠림 현상

미 증시는 경기 개선 기대가 약화되며 하락 출발. 특히 그동안 파산 위험이 높아진 종목들 마저 급등하는 등 무차별적인 상승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며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점이 특징. 그러자 방어적인 성격으로 해석된 대형 기술주가 급등하며 나스닥은 강세. 한편, 정부의 4 차 코로나 부양책 가능성이 제기돼 장중 낙폭이 축소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매물 출회는 지속(다우 -1.09%, 나스닥 +0.29%, S&P500 -0.78%, 러셀 2000 -1.94%)

미 증시가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상승과 하락 쏠림을 알 수 있는 Put/Call Ratio 가 있는데 콜(상승) 거래량 대비 풋(하락) 거래량을 비교하는 것으로 1.00 이상이면 하락할 것이라는 투자 비율이 많다는 뜻. 그런데 최근 이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2000 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0.37 을 기록.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런 가운데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파산 되거나 파산 위험도가 높은 소매, 에너지 일부 종목들의 급등이 나타나는 등 기본적인 펀더맨탈이 무시되는 경향이 나오고 있음. 그러자 오늘 주식시장은 우려가 확산돼 매물이 출회되며 약세를 보임. 특히 위험도가 높은 중소형지수인 러셀 2000 지수의 낙폭이 컸음. 더불어 경제 재개속 택사스 지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재 확산 된 점도 부정적 요인

이런 가운데 시장 참여자들은 방어적 성격이 높아지며 아마존(+3.04%), 애플(+3.16%), 페이스북(+3.14%) 등 대형 기술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 관련 종목들의 급등을 불러옴. 그러나 이 또한 또 다른 쏠림 현상의 하나라는 점에서 시장의 부담은 지속.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FOMC 에서 연준의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상존하고 있어 일단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의 전환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음. 물론 이러한 쏠림 현상은 정부와 연준의 유동성 공급에 의한 결과로 추정되는 데 오늘도 미 정부 관계자가 4 차 코로나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는 발언을 하자 지수 하락폭을 제한. 이를 감안 FOMC 결과 이후 시장의 방향이 바뀔 수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음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188.92	+0.21	홍콩항셍	25,057.22	+1.13
KOSDAQ	753.82	+0.10	영국	6,335.72	-2.11
DOW	27,272.30	-1.09	독일	12,617.99	-1.57
NASDAQ	9,953.75	+0.29	프랑스	5,095.11	-1.55
S&P 500	3,207.18	-0.78	스페인	7,752.30	-1.82
상하이종합	2,956.11	+0.62	그리스	678.68	-0.70
일본	23,091.03	-0.38	이탈리아	19,930.20	-1.49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대형기술주 상승 Vs. 코로나 피해 업종 하락

아마존(+3.04%), 애플(+3.16%), 페이스북(+3.14%)은 최근 일부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이 확대되자 방어적인 성격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했다. 더 나아가 알파벳(+0.28%), MS(+0.76%) 등 여타 대형 기술주 또한 강세를 보였다. 한편, 온라인 쇼핑업체인 이베이(+2.11%)는 판매 증가에 기대 투자의견 상향 조정 소식으로 상승했다. NVDIA(+2.74%), AMD(+6.46%), 넷플릭스(+3.47%) 등은 텍사스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재차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자 언택트 관련 기대 속 상승했다.

한편, 인텔(-0.99%), 마이크론(-1.02%) 등은 애플이 내년부터 맥 컴퓨터에 자체적인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하락했다. 다만, 코로나 재 확산 우려가 부각되며 데이터 센터향 수요 증가 기대가 높아 낙폭은 제한 되었다. 디즈니(-2.66%)는 코로나 여파로 투자의견이 하향 조정되자 약세를 보였다. 부킹닷컴(-3.42%) 등 여행주, 라스베가스 샌즈(-3.56%), 매리어트(-5.14%) 등 호텔, 레저, 델타항공(-7.57%) 등 항공업종, 사이몬 프로퍼티(-9.46%) 등 부동산 업종, 코노코필립스(-3.34%) 등 에너지 업종은 텍사스주가 경제 재개 이후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약세를 보였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7.25%	대형 가치주 ETF(IVE)	-1.92%
에너지섹터 ETF(OIH)	-7.62%	중형 가치주 ETF(IWS)	-2.53%
소매업체 ETF(XRT)	-2.47%	소형 가치주 ETF(IWN)	-2.54%
금융섹터 ETF(XLF)	-2.13%	대형 성장주 ETF(VUG)	+0.19%
기술섹터 ETF(XLK)	+0.47%	중형 성장주 ETF(IWP)	-1.22%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30%	소형 성장주 ETF(IWO)	-1.42%
인터넷업체 ETF(FDN)	-0.27%	배당주 ETF(DVY)	-2.33%
리츠업체 ETF(XLRE)	-1.14%	신흥국 고배당 ETF(DEM)	-0.83%
주택건설업체 ETF(XHB)	-1.18%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8%
바이오섹터 ETF(IBB)	-0.14%	미국 국채 ETF(IEF)	+0.36%
헬스케어 ETF(XLV)	-1.04%	하이일드 ETF(JNK)	-0.65%
곡물 ETF(DBA)	+0.07%	물가연동채 ETF(TIP)	+0.10%
반도체 ETF(SMH)	+0.18%	Long/short ETF(BTAL)	+4.56%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338.46	-3.59%	+11.20%	+16.80%
소재	370.97	-1.17%	+4.07%	+14.04%
산업재	626.44	-2.51%	+8.26%	+18.98%
경기소비재	1,065.43	-0.04%	+4.67%	+11.80%
필수소비재	617.50	-0.91%	+1.10%	+3.87%
헬스케어	1,195.49	-1.08%	+0.18%	+1.56%
금융	432.93	-2.11%	+9.54%	+19.46%
IT	1,797.81	+0.48%	+3.62%	+7.20%
커뮤니케이션	187.61	+0.18%	+2.39%	+7.53%
유틸리티	310.60	-2.12%	+1.14%	+9.47%
부동산	231.73	-1.12%	+5.23%	+13.45%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외국인 선물 동향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44% MSCI 신흥국 지수 ETF 는 0.68% 하락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98.05 원으로 달러/원 환율은 전일 대비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 증시가 FOMC 를 앞두고 방어적 성격이 높은 대형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외 종목들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차별화가 특징이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도 나타날 개연성이 높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글로벌 주요 지수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던 코스닥의 경우 매물 출회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

물론 11 일(목) 선물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외국인의 누적 선물 순매수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선물 시장의 움직임이 KOSPI 대형주들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수급에 주목할 필요는 있다. 특히 KOSPI 200 선물이 KOSPI 200 지수 보다 낮은 가격에서 형성되고 있어 현물 매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에 따른 스프레드 축소로 프로그램 매수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는 차익 매물 출회가 예상된 가운데 외국인의 선물 동향 따라 지수의 변화폭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소기업 낙관적인 전망 증가

5 월 미국 소기업낙관지수는 전월(90.9)이나 예상(92.0)을 상회한 94.4 로 발표 되었다. 경제 재개가 확산되자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소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4 월 미국 채용공고는 전월(601.1 만건)이나 예상(575 만건)을 크게 하회한 504.6 만건을 기록했다. 한편, 이직률은 1.5%로 전월(2.0%) 보다 낮아졌다. 이는 노동자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관련 지표 결과는 고용불안 심리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제유가 장 마감을 앞두고 상승 전환

국제유가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약세를 보였다. 그러나 리비아 주요 유전의 생산 중단 소식이 전해지자 반등에 성공 했다. 한편, 미 에너지 정보청은 올해 미국의 산유량을 하루 평균 1,156 만 배럴로 하향 조정 했다는 점,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주간 원유 재고에 대한 전망치가 320 만 배럴 감소했을 것으로 알려진 점도 상승 전환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글로벌 경제 재개가 지속되자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며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더불어 고용지표 부진 등도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멕시코 페소화가 달러 대비 1.6% 약세를 보였다. 텍사스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재차 급증하자 멕시코와의 교역 통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더불어 역외 위안화는 달러 대비 0.3% 약세를 보이는 등 신흥국 환율은 대체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대형기술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는 등 주식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하락 했다. 더불어 고용지표 부진도 하락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FOMC 를 앞두고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또한 불확실성 회피 현상이 부각되며 하락세를 부추겼다. 다만 10 년물 국채입찰에서 응찰률이 12 개월 평균(2.45 배)를 하회한 2.26 배를, 간접입찰도 12 개월 평균(60.6%)를 하회한 56.7%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감소한 점은 하락을 제한한 요인이다.

금은 FOMC 를 앞두고 달러 약세로 상승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약세 불구하고 구리를 제외한 여타 상품은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64% 하락을, 철근은 보합을 보였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WTI	38.94	+1.96	+5.79
브렌트유	41.18	+0.93	+4.07
금	1,721.90	+0.99	-0.70
은	17.794	-0.55	-2.55
알루미늄	1,605.50	+0.03	+3.78
전기동	5,774.00	+1.31	+4.44
아연	2,017.50	-1.20	-0.10
옥수수	327.50	-1.87	+1.00
밀	504.50	-1.37	-0.69
대두	863.25	-0.17	+1.50
커피	99.70	-0.99	-0.05

주요 통화	종가	D-1(%)	D-5(%)
Dollar Index	96.407	-0.22	-1.30
EUR/USD	1.1337	+0.38	+1.50
USD/JPY	107.76	-0.62	-0.85
GBP/USD	1.2729	+0.04	+1.42
USD/CHF	0.9508	-0.71	-1.21
AUD/USD	0.6964	-0.81	+0.97
USD/CAD	1.3404	+0.16	-0.85
USD/BRL	4.889	+1.39	-6.04
USD/CNH	7.079	+0.32	-0.39
USD/KRW	1197.70	-0.59	-2.26
USD/KRW NDF1M	1198.05	+0.17	-1.80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819	-5.65	+13.35
한국	1.382	-6.50	+2.50
일본	0.020	-3.20	+0.80
독일	-0.309	+1.00	+10.60

10 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스페인	0.634	+8.90	+7.90
포르투갈	0.590	+7.20	+8.40
그리스	1.446	+4.70	-4.90
이탈리아	1.499	+9.70	+0.10